

특별기고

국민과 대통령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최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

투표함의 뚜껑이 열렸다.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탄핵에 이어 촛불혁명의 2단계 과제인 민주정부의 수립이 현실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은 그의 넉넉한 인품과 개혁적 사고, 다양한 경험, 지난 5년 동안의 인고에 낡은 결과물이다.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또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가능하게 만든 촛불 국민 모두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한 데 대해 속상해 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중도개혁 정당의 집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도 실망이 클 것이다. 진보 정당 후보로서 큰 박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가 6%대의 득표율에 머물고 만 데 대해 아쉬움을 가질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축하와 아쉬움 모두 국민의 몫이고 그 자체가 역사다. 탄핵 국면

에서 박근혜 탄핵 지지 국민들이 약 75% 안팎을 유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탄핵에 찬성한 대선 후보들의 총 득표율도 75% 수준을 기록했다. '75% 만세!'라고 외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제3기 민주정부의 탄생 외에도 반민주 세력의 잠패와 중도 보수정당의 선전, 진보정당의 가능성 등 많은 긍정적 요소들을 낳았다. 지역 구도의 완화 가능성도 보였다. 호남의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이 지지 않으면서도 그 지향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여러 면에서 박수를 받을 요소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닥칠 과제는 아무래도 사드 배치 및 이를 둘러싼 외교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가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와 달리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재문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어쩌면 대통령 문재인 의 역량을 넘어서는 주제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자주 외교의 전통을 살리되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한 것은 적폐 청산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박근혜 탄핵 및 구속과 함께 적폐청산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가 버렸다.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단기간이 아니라 길게 보며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새 대통령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저출산,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저성장, 환경문제 등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와 3권분립의 공고화, 지방분권을 공약했다.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도 연구 대상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만 진행해도 큰 진전임은 틀림없다. 미국처럼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예산 심의·편성권을 확보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기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청문회 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개헌 때 헌법 내용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했고 또 그가 가장 잘

이행할 정책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서 큰 성과를 내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통합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을 듣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해서 '아,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기 바란다. 닷불인다면 유능한 인재들을 동용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도.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그것이 민주 연립정부의 성격도 겹쳤으면 좋겠다. 다당제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촛불의 기대치는 한없이 높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새 대통령을 제2의 박근혜로 만들고 싶어 할지 모른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면서도 그 과정들의 이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다. '통합 대통령'도 약속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으로 국민을 꼭 행복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이낙연 총리 지명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다

새 대통령에 바란다 ① 탕평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집무 첫날인 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에는 이낙연(65) 전남지사를, 국정원장에는 서훈(63) 이화여대 교수를 각각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51) 전 의원을, 경호실장에는 주영훈(61)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신선했다. 평가 변할 것 같은 조짐이 보여 기분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배정에 일일이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든든한 느낌을 주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총리는 비영남권에서 발탁하겠다고 하면서 호남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비쳤고 통합의 정신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집무 첫날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특히 이 총리 후보자는 전남 영광, 서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 임 실장은 전남 장흥, 주 실장은 충남 출신으로, 고루 지역적 안배가 이뤄졌다. 더군다나 이 총리 후보자는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깝고 임 실장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계파를 초월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발표에서 총리 지명과 관련해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하신 분인 만큼 협치행정·탕평인사의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간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 인사 원칙'에 입각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 및 권력기관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제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비판자와 반대자까지도 두루 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사를 계속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 주기를 바란다.

기대되는 송암 문화콘텐츠밸리 본격 조성

광주의 대표적 노후 산단인 송암산 업단지가 '문화콘텐츠 밸리'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최근 남구 송암산단 전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영상, 게임, 에듀테인먼트 등 5대 전략 콘텐츠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산업 영역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송암산단을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2년 1단계로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로 2단계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쓰이는 3D, 초고화질(UHD) 제작 시스템 구축과 체험 테마파크, 야외 제작스튜디오

등이 포함돼 있다. 시가 이번에 구상안을 밝힌 문화콘텐츠밸리는 송암산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완결판이다. 문화·첨단 산업을 집적하는 이 사업이 완결되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21세기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과 4차산업 육성을 위해 차곡차곡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문화콘텐츠밸리 사업 예산이 무려 1조 5000억 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시는 치밀한 사업 계획과 비전을 마련해 차기 정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지향점이 경제 활성화에 맞춰진 만큼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칼럼

남성난임 주저 말고 치료받아야



문현준 시월병원 비뇨기과 원장

대개 1년 동안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임신되지 않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40% 정도가 남성에게 문제가 있어 불임이 된 경우로, 이를 남성난임이라고 한다. 남성난임은 그 자체로는 특이 증상이 없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먼저, 고환에서 정자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정자가 있더라도 수가 작거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정

자 자체의 이상이 있다. 그리고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의 이동통로인 부고환과 정관 그리고 사정관에 이르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임신이 어렵다.

또한, 정낭과 전립선의 문제가 정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성교 관련을 초래하는 음경만곡증과 같은 선·후천성 해부학적 이상, 또는 발기부전 같은 기능적 이상, 살정제 사용과 같은 성교 자체의 불편이나 불능 등 음경 자체의 이상이 바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신과적 약물, 술,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남성호르몬작용을 하는 약물 또는 건강 식품의 장기 복용, 심리적 스트레스 등도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신부전이나 간경화와 같은 만성적 내과질환도 남성난임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남성난임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인 남성난임을 진단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 환자의 생활습관을 포함한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를 진찰하며, 필요한 검사 또한 차근차근 그리고 치밀

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때 많은 경우에 정구적인 난임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남성난임 전문의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시험을 통과한 의사 중에서, 수년간 인턴과 레지던트라는 과정의 개별 전공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시 추가로 남성난임과 현미경수술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남성난임 전문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이는 드물다. 실제로 남성난임환자를 위한 비뇨기과 전문수련과정을 갖춘 대학병원이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드문 형편이다.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첫걸음은 일단 부인과 남편이 함께 손을 잡고 전문의료를 방문하는 것이다. 전문의료진들을 만나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하나하나 찾아냄과 동시에 치료과정을 받는 것이다.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상품과 함께 아무

런 제재없이 난무하고 있는 상업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기다리는 남편과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이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그렇지만, 난임 치료에서는 특히 환자와 의료진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약할 경우 난임 치료과정을 제대로 마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난임환자들은 정확한 전문적 진단과 단계적으로 계획된 치료의 도움으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시간과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 환자들도 의료진과 전문병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병원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 주변의 평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진의 프로필을 면밀히 살피고, 병원 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임신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연구 업적, 시설 수준 등도 살피면 도움이 된다.

5·18 37주년 릴레이 기고

촛불로 잇는 오월



김신영 조선대 총학생회장

얼마 전 5·18을 맞아 광주 여행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80년 오월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다. 전국에서 광주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일정에 옛 전남도청 담사가 있어서 마음이 끌렸다. 아직 전시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간을 우리가 먼저 본다는 설렘도 있었고,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도청 내부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중학생 때였을까, 옛 도청 본관 1층에서 5·18 사진전을 했었다. 시내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하게 들어갔던 곳이라 연도와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엄숙한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낡은 벽을 가득 메운 탄흔, 2층으로 향하는 열륙달록

오월도, 촛불도, 우리도 박제하지 말라

한 계단, 어두운 복도와 금남로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유리창.

나는 그곳에서 짧게나마 80년 오월의 시민군이었고, 두려웠고, 장엄했다. 찰나의 시간은 내 마음에 남아 오월이면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대학생이 되고 접한 80년 5월 27일의 영상에서 피 집값이 되던 계단과, 총격으로 깨진 유리창은 내가 그날 만났던 벽면의 시린 감촉과 겹쳐 오월이면 자주 나를 망설임으로, 도청으로, 금남로로 불러내는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들어간 옛 도청. 나는 입구에서부터 턱 막히고 말았다. 전시 준비가 덜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립묘지 안의 5·18 추모관이나, 금남로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있다면 여러 기술적인 부분, 미적 요소, 전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다고 평가했을지도 모른다. '갈탄'이 나올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오월이 아니었다.

잘 만들어진 박물관에서 80년 오월을 지식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그 배움만으로는 오월을 이룰 수 없다. 왜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하는 것이 중요한지, 단원고 기억교실을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는지, 옛 전남도청 리모델링을 막고 원

형보존 하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나는 그날 담사에서 느꼈다. 아무리 번드르르한 설명과 치장을 한다 해도, 울림이 없다. 장엄함이 없다. 비장함이 없다. 그곳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박제'였다.

그리고 보니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다. 위대한 국민이 꺼지지 않는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 정권교체까지 만들었다. 새 정권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열원, 위대한 촛불 혁명, 이를 만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눈물과 웃음들이다. 그 정신이 묻히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쳤는데 그들이 비랑 끝에서 다시 기어올라와 '아쉽다'고 이야기한다.

'국민대통합'이라며 이상한 합당모의, 진보와 보수의 세력 갈등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 촛불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실망하는 것. 그 어떤 뜻이 있는 말로도, 그 어떤 실천이라도 적폐청산을 염원했던 촛불 정신을 담지 못한다면 이제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정권, 촛불이 만든 길, 촛불이 가라고 한 방향 그대로 가시라. 촛불이 이 정도로 한 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정권교체는 잘 만들어진 박제 그 이상도 이

하도 아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 교육에서 학과 구조조정, 새로운 교육부의 지원사업, 취업, 국가장학금... 모든 게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 4차 산업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합계형 인재'로 육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하는 걸까. 부정한 것에 맞서 역사를 만들어왔던 대학생들의 역할을 영혼 없는 대학이 빼앗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생들이 숨 쉬게 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길이고, 대학생들이 진짜 인재가 되는 방법이다.

올해 오월은 원묘역(5·18구묘역)에 더 자주 가야겠다. 그전까지 늘 어렵기만 했던 원묘역에서 힘을 얻는다. 오월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오월 정신이 역사들의 마음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곳.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행동을 다시 결심하는 곳에서 다시 오월을 잇기 위해 큰 숨들이 마시고 와야겠다.

우리는 박제가 아니다. 우리는 오월을 잇는다. 우리는 여기 살아있다.

**無 等 鼓**

그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본 것은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와음(和音) 프로젝트'에서다. 미술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음악을, 바로 그 미술 작품이 걸린 '현장'에서 선보이는 기획이었는데 이날 연주된 음악은 강준일 곡 '불의 전사'였다. 작곡가에게 영감을 준 건 '달콤한 이슬-1980 그후'전에 내걸린 한 남자의 '초상화'다.

1971년 동생 서준식과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19년간 옥살이를 했던 그 남자, 서승은 고문을 못 이겨 스스로 취조실 석 유난로의 호스를 빼고

**윤상원의 얼굴**

바람되는 글귀다. 목포 출신 작가에게도 5·18은 인생을 뒤흔들었다. 초 바꾼 사건이었다. 서승은 속 일그러진 코와 입, 슬픈 듯 물기 어린 눈동자와 희미한 웃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또 다른 사내도 눈에 띄었는데 북한 축구 선수 정대세였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그의 얼굴에는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3년 후, 메이플에서 윤상원 열사의 대형 초상화를 만났다. 초상화를 그린 정영창은 메이플에서 '검은 하늘 그날'(12~31일)전을 연다. 작가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소재인 '5·18' 전시의 물꼬를 터준 게 윤상원 열사와 그가 꿈꾸던 평화 공동체였다. 한참을 들여다본

초상화 속 윤상원의 모습에선 그의 선한 의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작품에는 그의 초등학교 일기가 담겼다. '일찍 학교에 가니 벌써 앞길은 눈이 치워졌다. 누가 이렇게 치웠을까? 종양이가 내리는 눈을 웃으며 치우니까. 얼마나 장한 일이라. 옹고그름을 분간하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다.' 죽는 순간까지 이웃을 생각했던 그의 삶이 오

바람되는 글귀다. 목포 출신 작가에게도 5·18은 인생을 뒤흔들었다. 초 바꾼 사건이었다. 서승은 속 일그러진 코와 입, 슬픈 듯 물기 어린 눈동자와 희미한 웃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또 다른 사내도 눈에 띄었는데 북한 축구 선수 정대세였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그의 얼굴에는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3년 후, 메이플에서 윤상원 열사의 대형 초상화를 만났다. 초상화를 그린 정영창은 메이플에서 '검은 하늘 그날'(12~31일)전을 연다. 작가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소재인 '5·18' 전시의 물꼬를 터준 게 윤상원 열사와 그가 꿈꾸던 평화 공동체였다. 한참을 들여다본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물 발송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